

# 여성 얼굴의 측정치를 통한 20대와 60대의 비교 분석

## Comparison and Analysis of Women Faces in 20s' and Women Faces in 60s Through Women faces's Measured value

김애경\*† · 이경희\*\*

Ae-Kyung Kim\*† · Kyung-Hee Lee\*\*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노인 생활 환경 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Ecology for the Elderly, Pusa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thesis analyzes the proportion and disproportion of faces through visual analysis and measured value for women faces in 20s and 60s..

The proportion of bizygion breadth and face height is 1 : 1.34 in 20s and 1 : 1.39 in 60s which shows face height is long in 60s, and 0.85 : 1 : 1 for upper face length, middle face length and lower face length in 20s which shows the proportion of upper face length and lower face length are long while they are 0.84 : 1 : 1.06 in 60s which shows lower face length is long and upper face length is short. If the proportion of the face is more than 2° which is severe imbalance, angle of eyes is 8% in 20s, 13% in 60s, and angle of nasal is 11% in 20s, 29% in 60s, angle of mouse is 11% in 20s and 40% in 60s, showing imbalance of 60s is severe.

As above, It shows that face height is longer in 60s than in 20s and lower face is long among others because face's change due to aging. Also, We able to know that face's imbalance is severer in 60s than in 20s.

**Keywords** : faces's Measured value, upper face length, middle face length, lower face length

### 요 약

이 논문에서는 20대와 60대를 얼굴의 측정치와 시각적 분석을 통해 얼굴의 비율과 불균형을 분석하였다.

얼굴폭과 얼굴길이의 비율이 20대는 1 : 1.34, 60대는 1 : 1.39로 나타나 60대 여성의 얼굴길이가 길며, 상안부길이, 중안부길이, 하안부길이의 비율에서 20대는 0.85 : 1 : 1로 중안부길리와 하안부의 길이가 같은 반면, 60대는 0.84 : 1 : 1.06으로 하안부길리가 길고 상안부길리가 짧다. 얼굴의 균형감은 2°이상의 심한 불균형인 경우 눈초리각도가 20대에서 8%, 60대에서 13%, 코각도가 20대에서 11%, 60대에서 29%, 구각각도에서 20대가 11%, 60대에서 40%로 나타나, 60대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20대에 비해 60대의 얼굴이 전체적으로 길며, 그중에서도 하안부가 길게 나타난 것은 노화로 인해 얼굴이 변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얼굴의 불균형이 20대에 비해 60대에서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얼굴 측정치, 상안부길이, 중안부길이, 하안부길이

† 교신저자 : 김애경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이미지메이킹 전공)

E-mail : yeskak@daum.net

TEL : 051-510-3609

## 1. 서론

현대 사회는 외모에 의해 인상, 정서, 성격, 태도, 사회적 지위 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에, 사회생활에서도 외모의 중요성이 부각 될 수밖에 없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은 원만한 대인관계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원동력이다.

외모 중에서도 얼굴부분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람의 호감도를 평가하는데 얼굴이 전적으로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많은 부작용이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미지 구축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성형이 최선의 선택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회전반적인 추세이다. 특히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 또한 인상형성에 결정적인 핵심인자(Ekman P. & Friesen W., 1969)이며, 균형 잡힌 얼굴이 더욱 매력적으로 인지(Fink et al., 2001)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외모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얼굴에 대한 관심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과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소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대의 젊은 여성은 아름다운 얼굴이 성공적인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20대의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60대의 여성에게도 똑같이 큰 관심사로 작용하고 있다. 60대를 전후로 제 2의 사회생활이 시작됨에 따라 대인관계가 폭 넓게 전개되어 짐으로, 매력적이며 좋은 인상의 얼굴을 소유하기 원하는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연령에 관계없이 매력적인 얼굴로 인해,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얼굴의 측정을 통해 연령대의 비교 분석과 얼굴의 균형의 정도를 밝히는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표정은 개인에 대한 성격 인상 형성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며(조경덕, 2004), 얼굴 균형이 그 중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됨으로, 이 논문에서 얼굴의 매력과 균형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여성과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얼굴 외형의 변화가 나타나는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사진 측정을 통해 비교 분석하여, 매력적인 얼굴 인상을 만드는 이미지 메이킹의 영역과 학문적인 영역인 인상형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얼굴이라는 변인을 통해 인상형성의 차이를 규명하거나(문영보, 1991), 얼굴의 표정에서 내적인 상태를 읽어내며(한재현, 정찬섭, 1998), 얼굴의 계측을 통해 얼굴의 유형과 미인형(이화순, 1992; 조대환, 1989; 박종섭 외, 1989)을 규명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경식(1962)은 1960년과 1961년에 18, 19세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얼굴의 길이와 폭의 평균비가 1 : 1.35의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위정신 외(1981)의 연구에서는 한국 미인의 평균비율이 1 : 1.43으로 평균적인 한국여자보다 얼굴이 더 가름하다고 하였으며, 상안부와 중안부, 하안부의 길이가 거의 같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문남원(2000)의 연구에서는 성인 여대생의 얼굴비가 1 : 1.38로 나타났다. 또한 상안, 중안, 하안부의 길이 평균은 5.74, 6.20, 6.30으로 하안부의 길이가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동진 외(1989)는 얼굴의 비는 1 : 1.33으로 계측되었고, 상안, 중안, 하안부의 길이 평균은 5.33, 6.44, 6.35로 중안부의 길이가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측정치를 통해 조대환(1989)은 미녀와 추녀를 분석하였는데, 미인형은 추녀형에 비해 상안부길이가 길고, 하안부길이가 짧은 것으로 나타나 즉 이마가 넓으며, 턱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박종섭 외(1989)도 여성스러운 인상을 얼굴이 전체적으로 작고 둥글며 코가 작고 턱과 입이 작은 얼굴이라고 하였다. 특히 좁은 코가 여성스러우며, 입의 크기와 턱의 크기, 돌출정도에 따라 여성스러움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한재현, 정찬섭(1998)은 내적 상태와 얼굴의 표정 간에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쾌-불쾌에 대한 얼굴의 표정은 입이 가로로 넓어질수록 쾌한 상태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눈을 크게 뜰수록, 입을 크게 벌릴수록, 눈썹을 내릴수록, 눈썹사이가 좁을수록 각성상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눈을 크게 뜰수록, 입을 크게 벌릴수록, 눈썹을 내릴수록 외부지향적인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은 얼굴표정의 입과 눈 부분이 내적상태의 변화를 민감하게 표현한 결과이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인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얼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좌우된다. 그 중에서 얼굴에 대한 측정과 얼굴에 대한 균형감에 의해 얼굴에 대한 인상을 평가 받을 것이다.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과 얼굴에 대한 인상은 보는 사

람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공유하는 인상 판단의 기준은 있다(박종섭 외, 1989). 이렇듯 얼굴의 균형감에서도 눈, 코, 입의 균형과 좌우 얼굴 윤곽의 대칭의 정도에 따라 얼굴 표정의 아름다운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얼굴의 측정을 통해 연령대의 비교 분석과 얼굴의 균형의 정도를 밝히는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며,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표정은 개인에 대한 성격인상 형성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에(조경덕, 2004), 얼굴의 균형이 그 중 하나의 중요한 단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얼굴의 매력과 균형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여성과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얼굴의 외형의 변화가 나타나는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사진 측정을 통해 비교 분석하여, 얼굴의 문제점인 외형의 변화와 불균형의 상태를 파악하여 매력적인 얼굴 인상을 만드는 이미지 메이킹의 영역과 학문적인 영역인 인상형성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이 연구를 위해 대상자의 얼굴을 사진 촬영하여 간접계측을 실시하였다.

#### 3.1. 측정대상 및 기간

2008년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산에 거주하는 20대(20-29세) 여성 80명과 2006년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부산과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60대(60-69세) 여성 80명의 정면사진을 촬영하여 측정하였다.

#### 3.2. 측정방법 및 측정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간접계측방법을 사용하였으며, 20개의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사진측정을 위해 촬영 시 일정한 눈금이 표시된 자를 대상자 얼굴의 볼의 위치에 설치해서 촬영하여 측정 시 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측정은 포토샵 6.0 프로그램 사용하였다.

측정치는 김애경, 이경희(2005), 이동진 외(1990), 박종섭 외(1990)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선정하였다.

세부 측정치는 얼굴길이, 상안부길이, 중안부길이, 하안부길이, 얼굴폭, 이마폭, 입기준폭, 턱끝결절길이, 눈길이, 눈높이, 눈사이거리, 눈썹길이, 눈썹폭, 눈썹사이길이, 코너비, 입술폭, 입술길이와 눈초리각도, 코각도, 구각각도 등 2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측정치의 세부내용은 그림 1과 표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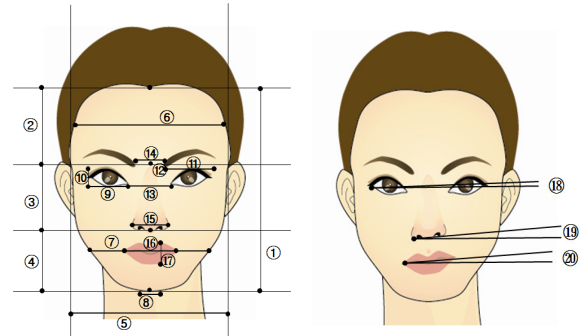


그림 1. 측정 기준선

표 1. 측정치

항목	내용
①얼굴길이	이마시작점에서 턱끝점까지 수직 길이
②상안부길이	이마시작점에서 눈살점까지 수직 길이
③중안부길이	눈살점에서 하비점까지 수직 길이
④하안부길이	하비점에서 턱끝점까지 수직 길이
⑤얼굴폭	얼굴의 최외측점까지의 수평거리
⑥이마폭	옆이마점 사이의 수평거리
⑦입기준폭	입초리를 기준으로 수평거리
⑧턱끝결절길이	턱끝점에서 직선적 수평 거리
⑨눈길이(좌우)	눈앞머리에서 눈초리까지 직선 길이
⑩눈높이(좌우)	눈의 세로 수직 길이
⑪눈썹길이	눈썹앞머리에서 눈썹초리까지 직선 길이
⑫눈썹폭	눈썹의 두께 수직 길이
⑬눈사이거리	양쪽 눈앞머리사이의 수평거리
⑭눈썹사이거리	양쪽 눈썹앞머리사이의 수평거리
⑮코너비	양 콧볼사이의 수평거리
⑯입술길이	양쪽 구각사이 수평 거리
⑰입술폭	입술 가장 두꺼운 수직 길이
⑱눈초리각도	수평선에 대한 양쪽 눈초리점 각도
⑲코각도	수평선에 대한 양 콧볼 각도
⑳구각각도	수평선에 대한 양 입초리 각도

### 3.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SPSS 12.0의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t-test를 활용 하였다.얼굴의 측정항목들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관계수를 활용하였으며, 얼굴의 비율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얼굴길이, 얼굴폭, 상안부길이, 중안부길이, 하안부길이를 사용하였고, 얼굴의 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눈초리각도, 코각도와 구각각도를 사용하였다. 각도의 방향은 적용하지 않았으며, 차이가 나타나는 각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활용하였다.

## 4. 결과 및 분석

### 4.1. 얼굴측정치 및 연령에 따른 차이 분석

#### 4.1.1. 20대 여성얼굴의 측정치 분석

20대 여성 얼굴의 측정항목에 있어 얼굴길이, 얼굴폭, 상안부길이, 중안부길이, 하안부길이 등으로 20대 여성 얼굴의 비율과 눈초리각도, 코각도, 구각각도를 통해 얼굴의 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용한 측정치 결과는 표 2, 표3과 같다.

20대여성의 얼굴비율을 살펴보면, 얼굴폭 기준으로 얼굴길이의 비율이 1 : 1.34, 상안부길이, 중안부길이, 하안부길이의 비율은 0.85 : 1 : 1로서 상안부길이가 짧게 나타났다. 얼굴길이와 얼굴폭의 비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이동진외(1989) 1:1.33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으며, 문남원(2000)의 1 : 1.38, 송미영(2006)의 1 : 1.35보다는 얼굴의 길이가 짧음을 알 수 있다. 상안, 중안, 하안부 길이는 이동진 외(1989)의 0.83 : 1 : 0.99, 문남원(2000)의 0.93 : 1 : 1.02, 송미영(2006)의 0.98 : 1 : 1.01에서 나타난 상안부가 짧은 결과와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20대 여성 얼굴의 상안부 균형의 정도를 파악 할 수 있는 눈초리각도를 분석하면, 눈과 눈썹의 불균형으로 나타난다. 평균 눈초리각도는 0.8° 정도이며, 1° 이하의 경우가 70%로 대다수의 20대 얼굴이 이 범위에 속하고 있다. 2° 이상의 불균형은 8%로 적은 숫자가 눈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안부의 균형을 살펴보면, 코의 각도가 생기면서

얼굴의 불균형으로 틀어짐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주로 볼부위와 코 위치의 불균형 현상으로 나타난다. 20대 여성의 평균 코각도는 1.0°이고, 1° 이하의 경우 65%로 나타났고, 2° 이상의 불균형은 11%로 볼부위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안부의 균형을 분석하기 위해 구각의 각도를 살펴보면, 평균 구각각도는 1.1°이고, 1° 이하의 경우가 57%로 나타났으며, 2° 이상의 불균형은 11%로 입과 턱선 부위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4.1.2. 60대 여성얼굴의 측정치 분석

60대 여성의 얼굴을 얼굴길이, 얼굴폭, 상안부길이, 중안부길이, 하안부길이 등으로 얼굴의 비율과 눈초리각도, 코각도, 구각각도를 통해 얼굴의 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표 2, 표 3과 같다.

얼굴폭 기준으로 얼굴길이의 비율이 1 : 1.39로 나타났다으며, 상안부길이, 중안부길이, 하안부길이 비율이 0.84 : 1 : 1.06로 상안부길이가 짧은 형태이며 하안부길이가 얼굴 전체길이 중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얼굴길이와 얼굴폭의 비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이 연구의 대상자인 60대가 1960년과 1961년에 18.19세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 : 1.35로 나타난 이경식(1962)의 연구와 비교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얼굴의 길이가 길어짐을 알 수 있다. 상안, 중안, 하안부 길이는 이동진 외(1989)의 0.83 : 1 : 0.99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며, 문남원(2000)의 0.93 : 1 : 1.02와 송미영(2006)의 0.98 : 1 : 1.01의 결과와는 유사하게 하안부의 길이가 긴 것을 알 수 있다.

60대 여성 얼굴의 상안부 균형의 정도를 파악 할 수 있는 눈초리각도를 분석하면, 눈과 눈썹의 불균형으로 나타난다. 평균 눈초리각도는 1.3° 정도이며, 1° 이하의 경우가 43%이고, 2° 이상의 불균형은 13%로 적지 않은 숫자가 눈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중 3° 이상의 심한 불균형도 3%로 나타났다.

중안부의 균형을 살펴보면, 코의 각도가 생기면서 얼굴의 불균형으로 틀어짐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주로 볼부위와 코 위치의 불균형 현상으로 나타난다. 60대 여성의 평균 코각도는 1.5°이고, 1° 이하의 경우 34%로 나타났고, 2° 이상의 불균형은 29%로 볼부위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하안부의 균형을 분석하기 위해 구각의 각도를 살펴보면, 60대 여성의 평균 구각각도는 1.8°이고, 1°이

하의 경우가 20%로 나타났으며, 2° 이상의 불균형은 40%로 입과 턱선 부위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중 4° 이상의 극심한 불균형도 5%로 나타났다.

4.1.3. 연령에 따른 여성 얼굴의 비교 분석

측정치에 따른 20대와 60대의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측정치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마폭항목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측정치를 활용하여 20대와 60대 여성을 비교하면, 노화가 진행된 부분, 즉 변화된 상태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얼굴 비율로 비교 분석하면, 얼굴폭 기준으로 얼굴 길이의 비율이 20대 여성 얼굴에서는 1 : 1.34, 60대 여성 얼굴은 1 : 1.39로 나타나 20대 여성보다 60대 여성의 얼굴길이가 긴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안부길이, 중안부길이, 하안부길이의 비율로 20대와 60대 여성을 비교해 보면, 20대는 0.85 : 1 : 1로 중안부길이와 하안부의 길이가 같은 반면, 60대

여성은 0.84 : 1 : 1.06으로 하안부길이가 길고 상안부 길이가 짧은 것으로 보아 노화에 의해 얼굴 부위 중 턱선의 처짐으로 하안부길이가 길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턱끝결절길이가와 코너비, 중안부길이 항목에서도 노화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턱끝결절길이가 20대 여성은 평균 2.21cm, 60대 여성은 3.0cm로 턱선이 두루뭉술하게 변한 것을 알 수 있고, 코 길이와 콧망울의 변화 상태를 살펴 볼 수 있는 코너비는 20대가 3.7cm, 60대가 4.2cm이며, 중안부길이에서는 20대 여성이 6.7cm, 60대 여성이 7.0cm로 노화의 징후로 콧망울이 둔해지고 코의 길이가 길어짐을 알 수 있다. 입항목에서 입술길이가와 입술폭을 비교하면, 입술길이가 20대가 4.9cm, 60대가 5.3cm, 입술폭은 20대가 2.0cm, 60대가 1.8cm로 나타나, 입술이 20대보다 60대가 길어지고 얇게 나타났다. 입가의 깊은 주름으로 인해 입술의 길이가 길어지고, 입술의 혈색의 변화로 인해 입술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입술의 볼륨감이 줄어들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료된다.

다음은 얼굴의 균형감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눈초리각도, 코각도, 구각각도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표 2. 얼굴측정치 및 연령에 따른 차이분석(단위 : cm)

측정항목	평균		표준편차		t-값	최소값		최대값		분산	
	20대	60대	20대	60대		20대	60대	20대	60대	20대	60대
①얼굴길이	19.0	20.3	1.72	1.01	-5.8***	14.1	18.1	24.2	22.9	2.9	1.01
②상안부길이	5.7	5.9	.64	.72	-2.01*	4.3	4.2	7.4	7.9	.41	.52
③중안부길이	6.7	7.0	.59	.55	-3.39**	5.7	5.8	8.3	8.2	.35	.31
④하안부길이	6.7	7.4	.74	.495	-7.39***	5.2	5.9	9.0	8.3	.54	.25
⑤얼굴폭	14.2	14.6	1.05	.63	-2.55*	12.2	12.7	17.3	15.8	1.11	.39
⑥이마폭	12.1	11.9	1.16	1.15	1.27	9.9	6.2	15.2	14.5	1.35	1.32
⑦입기준폭	12.0	12.9	.99	.76	-6.58***	9.3	11.1	15.0	14.9	.98	.57
⑧턱끝결절길이	2.2	3.0	.54	.69	-7.66***	1.0	1.6	3.7	4.7	.29	.48
⑨눈높이(좌)	1.0	.9	.17	.16	5.00***	.6	.5	1.5	1.3	.02	.02
⑩눈길이(좌)	2.6	2.6	.26	.26	2.47*	2.3	1.6	3.4	3.2	.07	.07
⑪눈높이(우)	1.0	.9	.16	.14	5.49***	.6	.6	1.4	1.2	.02	.02
⑫눈길이(우)	2.7	2.6	.27	.26	3.19**	1.8	1.5	3.7	3.2	.07	.07
⑬눈사이거리	3.8	3.6	.40	.38	4.98***	2.9	2.0	4.2	4.2	.16	.14
⑭눈썹길이	4.4	4.3	.53	.49	2.03*	3.5	2.3	5.8	5.8	.28	.23
⑮눈썹폭	.8	.6	.16	.16	7.91***	.4	.2	1.2	1.1	.03	.03
⑯눈썹사이거리	2.9	2.7	.40	.41	3.63***	2.0	1.9	4.2	3.6	.16	.16
⑰코너비	3.7	4.2	.37	.41	-7.55***	2.8	2.5	5.1	4.8	.14	.17
⑱입술길이	4.9	5.3	.55	.3	-5.08***	3.5	4.3	6.4	6.1	.30	.13
⑲입술폭	2.0	1.8	.33	.34	4.19***	1.3	.8	2.9	2.6	.11	.12

\*p<.05 \*\*p<.01 \*\*\*p<.001

3과 같다.

눈초리각도에서 20대는 70%가 1°이하의 균형감을 갖고 있으며 60대는 43%로 절반 이하가 다소 균형감을 잃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코각도는 20대가 1°이하인 경우가 65%이며 60대가 1°이하인 경우가 34%, 구각각도는 20대가 1°이하인 경우가 57%이고 60대가 20%로 나타났다. 1°이하인 경우에는 시각적인 불균형이 다소 적게 나타나므로 부정적인 인상으로 보여 지지 않지만 2°이상인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렇듯 2°이상의 심한 불균형인 경우 눈초리각도가 20대에서 8%, 60대에서 13%, 코각도가 20대에서 11%, 60대에서 29%, 구각각도에서 20대가 11%, 60대에서 40%로 나타나, 60대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입가의 뒤틀림의 정도가 심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 불균형이 주로 입과 턱선에서 노화에 의한 인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코선의 뒤틀림에 의해 양볼의 균형도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얼굴의 불균형은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노화와 함께 식습관, 환경의 변화로 인해 60대의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60대가 왕성하게 활동한 1970년대의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지금의 20대의 부드러운 음식 위주의 식단과 달리, 채소류 위주의 질기며, 딱딱한 음식의 식단으로 씹는 운동이 많았고, 외모에 대한 관심 또한 현재와는 큰 차이가 있어 얼굴의 표정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은 시기였기에 나이가 든 현재 불균형이 훨씬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해가는 모습을 좋은 인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대와 차이점으로 나타난 중안부길이와 하안부길이 길어진 얼굴, 좌우 불균형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상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평소에 자신의 얼굴에 관심을 가지고 찌푸린 인상을 짓고 있거나, 쉽게 화를 내거나, 항상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생활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면서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평소 생활가운데 지각하지 못하고 인상을 쓰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메이크업을 통해서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피부에 잡티, 검버섯등을 완벽하게 커버하기 위해 화장이 두꺼워지면 주름을 더 두드러지게 하며, 입술색상을 붉은색으로 강조하게 되면, 뭉턱하고 처진 턱선과 입의

불균형이 부각되어지기에 입술에 혈색을 부여해주는 정도로 표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 여성 얼굴의 균형감(눈초리각도, 코각도, 구각각도)

각도	눈초리각도		코각도		구각각도	
	20대	60대	20대	60대	20대	60대
0°	2(2.5)	0	8(10)	6(7.5)	3(3.7)	3(3.7)
0.1°-0.5°	32(40)	14(17.5)	15(18.7)	7(8.7)	24(30)	5(6.2)
0.6°-1.0°	22(27.5)	20(25)	30(37.5)	13(16.3)	19(23.8)	8(10)
1.1°-1.5°	11(13.8)	25(31.3)	9(11.3)	18(22.5)	9(11.3)	18(22.5)
1.6°-2.0°	6(7.5)	10(12.5)	9(11.3)	12(15)	16(20)	15(18.7)
2.1°-2.5°	4(5)	6(7.5)	5(6.2)	13(16.3)	5(6.2)	9(11.3)
2.6°-3.0°	3(3.7)	2(2.5)	3(3.7)	8(10)	1(1.3)	13(16.3)
3.1°이상	0	3(3.7)	1(1.3)	3(3.7)	3(3.7)	9(11.3)
합계	80(100%)	80(100%)	80(100%)	80(100%)	80(100%)	80(100%)

#### 4.2. 얼굴측정치 상관관계 분석

얼굴측정치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계수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20대 여성의 얼굴에서는 얼굴길이, 중안부길이, 이마폭 등의 모든 측정치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얼굴의 윤곽을 결정하는 항목인 얼굴길이, 얼굴폭, 이마폭, 입기준폭 간의 상관은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안부길이에서는 턱끝결절길이와 눈썹사이거리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안부길이에서도 눈썹사이거리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턱끝결절길이는 얼굴의 윤곽에 영향을 미치는 얼굴길이, 중안부길이, 하안부길이, 얼굴폭, 이마폭, 입기준폭 등과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눈썹사이거리에서는 얼굴길이, 중안부길이, 얼굴폭, 이마폭, 입기준폭 등과 함께 눈사이거리 항목과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눈의 크기를 좌우하는 눈높이, 눈길이 항목과는 상관이 없으며, 눈썹의 형태를 나타내는 눈썹폭, 눈썹길이 항목과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여성의 얼굴측정치에서는 모든 측정치에서 상관성이 있는 항목은 없으며, 얼굴의 중요한 비율을 결정하는 얼굴길이와 얼굴폭, 상안부길이, 중안부길이, 하안부길이 간에도 상관성이 부분적으로 나타나, 상안부길이가 중안부길이와 얼굴폭에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안부길이와는 음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안부길이가 길어지면, 하안부의 길이는 짧아짐을 알 수 있다. 얼굴의 윤곽을 결정짓는

표 4. 20대 여성의 측정치 간의 상관계수

측정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⑬	⑭	⑮	⑯	⑰	⑱
①	1															
②	**	1														
③	**	**	1													
④	**	**	*	1												
⑤	**	**	**	**	1											
⑥	**	**	**	**	**	1										
⑦	**	**	**	**	**	**	1									
⑧	**	*	**	**	*	*	*	1								
⑨	**	*	*	*	**	*	*	*	1							
⑩	**	**	**	**	**	**	**	**	**	1						
⑬	**	**	**	**	**	**	**	**	**	**	1					
⑭	**	**	**	**	**	**	**	**	**	**	**	1				
⑮	**	**	**	**	**	**	**	**	**	**	**	**	1			
⑯	*	**	*	*	*	*	*	*	*	**	**	*	1			
⑰	**	*	**	**	**	**	**	*	*	**	**	**	*	1		
⑱	**	*	**	**	**	**	**	**	*	**	**	*	*	**	1	

\*\* 상관계수는 0.01수준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5수준에서 유의

표 5. 60대 여성의 측정치 간의 상관계수

측정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⑬	⑭	⑮	⑯	⑰	⑱
①	1															
②	**	1														
③	**	**	1													
④	**	.*	**	1												
⑤	**	**	**	**	1											
⑥	**	**	*	**	**	1										
⑦	*	**	**	**	**	**	1									
⑧		*	**	**	**	**	**	1								
⑨									1							
⑩									.*	**	1					
⑬	**	**	*	**	**							1				
⑭			**	*	*					*	1					
⑮	*									*		1				
⑯	**	**	*	**	**					**	**	*	1			
⑰			*										**	1		
⑱	**	*	**	*	**	*	**			**	**	*	*	*	1	
⑲	*		*	*	*	*	*	*	*	*	**	**	*	*	*	1

\*\* 상관계수는 0.01수준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5수준에서 유의

얼굴폭, 이마폭, 입기준폭 간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얼굴폭은 눈사이거리, 눈썹사이거리와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사이거리 항목에서는 눈의 형태를 알 수 있는 눈높이와 눈길이 항목과 입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입술길이, 입술폭 항목과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측정치에서 20대와 60대 여성을 비교하면, 20대 여성에게서는 거의 모든 항목이 서로 상관이 있는 반면, 60대는 관련성이 없는 항목이 많이 나타났다. 얼굴의 노화로 인해 윤곽의 변화, 눈, 코, 입의 변화로 인해 관련성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얼

굴의 비율에서 중요한 상안, 중안, 하안의 길이가 20대에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60대 여성에게는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유추해보면, 노화로 인한 얼굴길이의 변화, 코길이의 변화, 턱선의 처짐 등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5. 논의

이 연구를 위해 20대 여성과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얼굴의 문제점을 20대와 60대를 얼굴의 측정치를 통해 비율과 불균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20대에 비해 60대의 얼굴이 전체적으로 길며, 그중에서도 하안부가 길게 나타난 것은 노화로 인해 얼굴이 변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얼굴의 불균형이 20대에 비해 60대에서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얼굴의 문제점은 20대의 얼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20대부터 꾸준한 얼굴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성형의 방법이 아니라 평소의 인상관리와 연출방법을 통해서 아름다운 얼굴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애경, 이경희 (2005). 얼굴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유형 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6), 650-656.  
 문남원 (2000). 시각적 판단에 의한 얼굴유형 분류와 계측 특성 연구. *복식문화연구*, 8(1), 133-144.  
 문영보 (1991). 의복 및 얼굴변인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수진, 한재현, 정찬섭 (2002). 얼굴의 물리적 특징 분석 및 얼굴 관련 감정 어휘 분석. *한국 인지과학회지*, 12(3), 1-10.  
 박종섭, 함기선, 윤정길, 조용진 (1990). 한국인의 안 선 호 경향에 관한 조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7(2), 196-200.  
 박종섭, 함기선, 조용진 (1989). 안면인상에 대한 계측학적 연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6(6), 920-925.  
 송미영 (2006). *얼굴의 형태적 특성과 메이크업에 따른 얼굴 이미지 연구*. 경성대 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위성신, 함기선, 이재웅, 조용진 (1981). 한국미인의 생체계측학적 연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8(2), 283-289.  
 윤관현 (2003). *한국인 얼굴의 해부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성, 한덕웅 (2003). 젊은 남성들은 어떤 얼굴모습의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2), 73-83.
- 이경식 (1962). 한국인 여자청년의 생체계측학적 연구. *최신의학*, 5(3), 87-94.
- 이동진, 김우경, 김수신, 백세민, 정전은 (1989). 한국 성인 여성의 안면부에 대한사진계측학적 연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6(3), 423-432.
- 이화순 (1992). *한국여성의 메이크업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경덕 (2004). 얼굴의 물리적 특성과 성격인상. *한국감성과학회지*, 7(2), 195-201.
- 조대환, 조용진, 함기선 (1989). 한국청년들의 미추관에 대한 생체계측학적 분석.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6(6), 926-931.
- 한재현, 정찬섭 (1998). 얼굴표정에 의한 내적상태 추정. *한국감성과학회지*, 1(1), 41-58.
- Ekman, P. & Friesen, W. (1969) Nonverbal leakage clues to deception. *Psychiatry*, 32, 88-106.
- Fink, B., Grammar, K., & Thornhill, R. (2001) Human facial attractiveness in relation to skin texture and color. *Journal of Comparative Psychology*, 115(1), 92-99.

원고접수 : 10.07.16

수정접수 : 10.09.02

게재확정 : 10.09.05